

동북아 안보 요동속 차대통령 외교력 또 시험대

방공식별구역 확대 결정 ... 中 반발·美 반대 우려

바이든 美부통령 한중일 정상 연쇄면담 시선집중

중국의 자국 방공식별구역(CADIZ) 일방 선포를 계기로 동북아 안보지형이 요동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력이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올랐다.

동북아 안보 위기를 불러온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추진, 이를 둘러싼 미·중간 갈등 그리고 중국의 CADIZ 일방선포에 따른 미·중간 동북아 패권 경쟁, 한·일 관계의 갈등과 악화 등은 모두 우리의 국익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안보 변수들로 꼽힌다.

박 대통령은 집권 후 내치보다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후

한 점수를 얻어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추진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는 방법으로, 경제뿐 아니라 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쪽 입장을 거드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듯한 입장을 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

여기에서 국빈방문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수차례 만남을 통해 과거 한국의 어느 정부보다 든든한 우호관계를 형성했다던 중국이 이 어도를 포함한 CADIZ 일방선포를 통해 우리의 발등을 짚은 상황이 됐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중국의 CADIZ 확대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 좀처럼 풀고구를 찾지 못하는 한일 관계 등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처지다.

우선 정부는 지난 1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KADIZ 확대 방안을 잠정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예초 3일 오전 개최될 예정이었던 정부와 새누리당 간 당정협의가 구체적인 날짜를 잡지 못한 채 돌연 연기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정 협의의 돌연 연기는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의 한국, 중국, 일본 순방과 무관한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 부통령은 2일 일본 도쿄에 도착한 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과 회담하며, 4일 중국으로 이동해 다음날까지 체류하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과 회담한다. 5일부터는 2박3일간 한국에 머물며 박근혜 대통령과도 회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런 논의의 흐름을 지켜보며 KADIZ 확대 문제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최종 정리해 공식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정부가 지난달 29일 한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시사한 것도 최근 동북아 갈등의 와중에서 나온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진다.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과 호주, 베트남 등 12개국이 참가한 이 협정은 한태평양 국가들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사실상 중국을 포위한 형태의 경제협정인 만큼 TPP 참여는 미·중 균형외교에 방점을 찍어온 박 대통령

이 새로운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배경으로도 읽힌다.

한편, 민주당 박해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외교정책과 관련, "대통령의 화려한 외치의 결과는 속빈 강정이었음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오랜 친구라던 시진핑 주석과 세 차례나 만났고 최고위급 전략대화도 했지만, 방공식별구역 일방 선포로 중국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꼬집었다. 또 "한미동맹을 그렇게 강조했지만,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과 관련하여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정부는 실속 없는 외치를 자랑하지 말고, 변화된 동북아 정세에 맞는 새로운 구상과 콘텐츠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hjkpark@kwangju.co.kr



미국 뉴욕시 브롱크스 스투이텐 두이빌 열차역 인근에서 1일 메트로-노스 열차가 탈선, 최소 4명이 숨지고 60여명이 부상했다. 탈선한 열차 차량들이 제멋대로 구부러져 나뒹굴고 있다. /연합뉴스



2013년도 정치기탁금 전달식. 강운태 광주시장이 2일 광주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시 공무원 701명이 모인 정치기탁금 6500만원을 광주시 선관위에 전달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연 광주시 시민협력관, 정민대 광주시 자치행정국장, 강 시장, 정영택 광주시 선관위 사무처장, 서인덕 시 선관위 관리과장, 김용환 시 선관위 관리담당관. <광주시제공>

필리핀 태풍 사망자 2000명 신원 확인 안돼

1만명 사망설 다시 제기

최근 필리핀 중부지역을 휩쓴 초대형 태풍 하이옌으로 숨진 5600여명 가운데 2000여명의 신원이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건물 잔해 등에서 상당수 시신이 추가 발견되면서 태풍에 따른 사망자 수가 1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도 다시 제기됐다.

필리핀 데일리인콰이어터 등은 2일 국가재해위기관리위원회(NDRRMC)를 인용, 지금까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5632명 가운데 2000여명의 신원이 여전히 파악되지 않았다

고 보도했다.

이들은 최대 피해지역인 타클로반 주민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NDRRMC는 밝혔다.

이들 매체는 또 경찰과 자원단체들이 최근 건물 잔해에서 상당수 시신을 추가 수습했다며 전체 사망자 수가 1만명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타클로반 지역의 경찰과 유엔 관계자들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사망자 수를 약 1만명으로 추정해 바 있다. NDRRMC는 지난 1일 전체 사망·실종자 수를 7391명으로 공식 집계했다. /연합뉴스

매각 앞둔 광은 '상생 민영화' 모색

오늘 광주 YMCA서 토론회

우리금융지주 소속 광주은행의 매각을 위한 본업철이 오는 23일로 예정된 가운데 지역발전과 지역민의 이익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호남미래연대와 광주전남비전 21은 3일 오후 1시 30분 광주 YMCA에서 '광주은행 상생의 민영화 방안' 제목의 토론회를 공동으로 연다고 2일 밝혔다.

주최 측은 매각 예정인 광주은행에 대한 지역 환원 목소리가 높은 만큼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김용구 미래경영개발 연구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최은철 전 서강대 부총장, 윤장현 광주 전남비전 21 이사장,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 김기홍 광주경실련 사무총장 등의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광주은행 지적자본 축적과 평가', '광주은행 상생의 민영화 방안 연구' 등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는

있는 김 원장은 시민들의 의견청취, 전문가 그룹의 집중 인터뷰, 민영화 시나리오별 지역 자본크기 측정 평가 등을 기초로 '광주은행 상생의 민영화 방안'을 설명할 계획이다. 정용화 호남미래연대 이사장은 "광주은행 민영화가 본격화된 가운데 지역발전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는 민영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따른 지역민의 역할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중 달 탐사선 '창어 3호' 발사 성공

중국의 달 탐사위성 창어(嫦娥) 3호가 2일 발사돼 첫 달 착륙에 나섰다. 중국 창어 3호 발사위부는 창어 3호를 이날 오전 1시 30분(현지시간) 쓰촨(四川)성 시창(西昌) 위성발사센터에서 발사했다고 밝혔다.

장진중(張振中) 위성발사센터 주임은 발사 50분 후 '발사 성공'을 선언했다고 중국 신화망(新華網)이 전했다.

창어 3호는 중국 최초의 로보 형태 무인 달 탐사차인 '육톈(玉兔·중국명 '위부')'을 비롯한 각종 장비를 싣고 달을 향해 올라갔다.

육톈가는 오는 14일을 전후로 달 표면에 착륙할 예정이다. 달 착륙에 성공하면 세계적으로는 13번째다. 중

국은 옛 소련(러시아)과 미국에 이은 3대 달 착륙 국가가 된다. 달 탐사차는 달 표면에 착륙한 뒤 달의 지형과 지질구조를 탐사하고 각종 사진과 관측 자료를 지구로 전송한다.

이로써 달에 우주인을 착륙시키고 달 탐사 기지를 건설한다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전망이다.

중국은 그간 달 탐사를 위해 2007년 창어 1호, 2010년 창어 2호를 쏘아 올렸다. 창어 3호에 이은 창어 4호도 발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화성 탐사와 독자 우주정거장 건설, 독자 인공 위성 위치확인시스템(GPS) 구축 등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 첨단 월계동 LCE타워 2층 상가 960㎡ 매 18억(분할 매매 및 임대 가능)(대형병원,학원,프랜차이즈 적합)
- * 교원공제부근 1층상가 225㎡ 매 12억3천(보1억3천,월600만 포함)유명프랜차이즈 입점 중
- * 서구 아파트상가 1,800㎡(점포 7칸) 매10억 (보 1억1천, 월610만, 용5억9천 포함)
- * 사우나건물(8층) 17억5천(보8천,월800만 대출 9억 5천),직영 월천만수입
- * 도천동 신축상고 대지2,500㎡,건평500㎡ 17억
- * 벽진동 창고,고물상용지 2,900㎡ 임대 보2천/월200

대지/전답

- * 상무지구 대지 405㎡(122평) 매 8억5천
- * 용전동 전(자연녹지) 1,180㎡ 매5억3천
- * 완도 약산 전(계획관리) 11,000㎡ 매 8억4천
- * 장흥 용산면 전,임야 101,851㎡ 매 6억
- * 남평 우산리 전(계획관리) 17,000㎡ 매 5억2천

기타

- * 영암 삼호중공업인근 주유소 매 9억(대출 5억)
- * 곡성 목사동 식당 1,750㎡ 매 3억9천(급매,조정가)
- * 담양 월산면 가든식당 1,520㎡ 매 3억4천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화순읍 군정 민원실 인근 대로변 2층 주거지 492㎡(149) 은행2억 감정 3억6천에 매도, 조정가능
- 용산동 재개발지역 주택 대지 40평 은행 4천 매도 8200
- 총장로5가 버스도로 대지777㎡(235) 공시지가 17억7천선 오피스텔, 상가개발적합 10억2천
- 함평군 영일 칠되는 여관 대지 320평 건평211평 객실 21실 대출4억 교환도 가능 8억8천
- 대인동 소방도점 상업지역 786㎡(238) 오피스텔·생활주택·다세대적합 금보로 5기에 있을 9억2천
- 대인동 4층 식당 건물 대지 149평 은행6억4천 매도8억
- 광산구 신항동 6차선과 4차선 도로 코너 대지302평 건물은 4층 715평 사옥, 병원, 요양시설, 종교시설 적합 은행 18억2천 전세3억에 월 16000수익 증축도 가능 33억
- 조선대학교 앞 대로면 동명동 5층건물 대지318㎡(96)건평 736㎡(228) 상가와 주택 있고 원룸15개 투룸3개 보증금 1억 2천에 월 5000수익 매도 9억6천
- 순천시 가곡동 상업지 177평 대출 3억2천 매도 3억6천
- 북구 두암동 싸우나 건물 대지 101평 건평300평 목욕탕은 직영하고 상가는 보증금 4500만원 월1500수익 은행2억5천 매도 8억
- 금남로 3가 부근 식당 대지 62평 건평 128평 5억5천

매도·임대

- 매도, 수기동 상업지역 705㎡(213) 원룸·투룸·스리룸 92개 허가, 주택기금 12억가능, 투자에 적합 7억2천
- 임대·매매, 쌍춘동에 신축중인 기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텔급 시설의 풀플렉스 주택, 입주는 12월 임대는 전세1000에 월 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출 3천만원) 포함 투자자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문의 222-4994, 010-2632-5659 생촌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서관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취대우선건설팀부, 매수선정대리업체(법인인가) 근린시설임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근린 시설

- ▷ 동구 지산동 준주거 3층근린 대지241㎡ 건평307㎡ 감정가4억
- ▷ 광산구 쌍암동 일반상업 숙박시설 대지1760㎡ 건평 2821㎡ 감정가46억 최저가12억
- ▷ 나주시 송월동 상업지역 6층상가 대지545㎡ 건평 2309㎡ 감정가3억 최저가17억

단독주택

- ▷ 북구 장등동 전원주택 대지763㎡ 건평137㎡ 감정가1억8천만
- ▷ 북구 운암동 2층단독주택 대지149㎡ 건평161㎡ 감정가1억 최저가17천만
- ▷ 나주시 남내동 2층주거 2층주택 대지319㎡ 건평297㎡ 감정가12억3천만 최저가13천만

공장및창고

- ▷ 북구 대촌동 창고및대지 토지2800㎡ 건물303㎡ 감정가11억 최저가8억
- ▷ 광산구 용동 일반공업 2층공장 토지3305㎡ 건물2711㎡ 감정가130억 최저가17억
- ▷ 강진읍 송덕리 병동,저운창고 토지33650㎡ 건물11762㎡ 감정가94억 최저가127억

토지매매

- ▷ 동구 내남동 1층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상담후 가격조정
- ▷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 관리지역 전,임야 3642㎡ 매매3,500만
- ▷ 광산구 지평동 자연녹지 대지,전 2115㎡ 매매5천만(조정가)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